국헌공 권칙權伋에 관한 실기자료 【7】

작품 해설

여기에서 나오는 규창유고의 이건李健은 광해군 6년, 1614년에 출생한 왕족으로서 선조의 8남 인성군仁城君 이공李珙의 아들이다. 인조반정仁祖反正 후 그 아버지 인성군이 반정공신 이귀李貴의 핍박을 받다가 끝내 유효립柳孝立의 모반에 왕으로 추대되었다 하여 인조 6년, 1628년 11월 25일 진도珍島로 유배되었다가 현지에서 사사賜死되었다. 이때 그는 형 길佶、억億과 함께 제주도에 유배되었다가 5년 뒤 이귀가 죽자 아버지의 무옥誣獄이 밝혀지고 인조의 배려로 1635년에는 제주에서 울진으로 이배되었다. 1637년에 귀양에서 풀려나고 효종 8년, 1657년에는 아버지가 복권됨에 따라 해원군海原君에 봉해지고 부친의 제사를 받들게 되었다. 그 아버지 인성군이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부왕 선조의 총애를 받다가 광해군의 질시로 곤욕한 바 있었는데 그도 또한 총명한 예술가로서 성품이 건실하고 사치와 재물을 좋아하지 않았다. 조그만 서실을 마련하여 경적經籍에 침잠하면서 시를 짓고 글씨와 그림에 힘쓰니 세상에서 그를 삼절三絶이라 일컬었다. 이러한 이건이 남긴 문집이 규창유고이고 그 안에 국헌공의 강로전이 실려 있는 것인데 이건은 국헌공보다 15년이 연하인 동시대인이다.

다음 자저自著의 유한준兪漢寯은 준寯이 준雋으로도 나오는데 영조 8년, 1732년에 나서 순조 11년, 1811년까지 80세를 산 학자、문장가이다. 초명은 한경漢炅, 자가 만청曼倩 또는 여성汝成, 호는 저암著菴、창애蒼厓이고 37세에 진사가 되어 김포군수를 거쳐 형조참의에 이르렀다. 문장가로서 영의정에 이른 남유용南有容의 제자로 송시열宋時烈을 추모하여 송자대전宋子大全을 놓지 않고 보았다는 사람이다. 당대에 뛰어난 문장가로 손꼽혔으며 저암집著菴集을 남겼고 그림에 대한 재능도 있어 화우畵友가 많았고 그림에 제발문題跋文을 쓴 것이 있다. 국헌공보다는 130여년 후세인이다.

동사잡록을 지은 안정복安鼎福은 국헌공보다 110여년 뒤인 숙종 38년, 1712년에 나서 정조 15년, 1791년까지 80세를 산 조선 후기의 실학자로 성호星湖 이익李瀷의 문인門人이다. 제천 출신으로 자는 백순百順, 호는 순암順菴 외에 한산병은漢山病隱、우이자虞夷子、상헌橡軒이다. 외가와 조부의 임지를 따라 영광靈光과 서울 등지로 전전하다가 25세 때 선영하 광주廣州의 덕곡德谷에 정착하였고 남인南人 집안이어서 그 부친 때부터 벼슬길이 끊겼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공부에 열중하여 경학經學은 물론 역사、천문、지리、의약에 달통하였다. 과거에 일체 응시하지 않다가 35세에 이익의 문하에 들어가 공부하면서 경세치용經世致用에 전념하고 38세에 만녕전참봉萬寧殿參奉이 된 것을 시작으로 사헌부감찰監察、세자익위사익찬翊贊을 거쳐 65세 때 목천현감木川縣監을 지낸 것으로 벼슬을 마쳤고 이후 수직壽職으로 통정대부通政大夫와 가선대부嘉善大夫를 받고 사후에는 문숙文肅의 시호까지 받았다. 스승 성호학파星湖學派의 학자들과 교유하며 실학의 사상적 영역을 넓혔으며 순암문집順菴文集 30권15책 외에 동사강목東史綱目、하학지남下學指南、열조통기列朝通紀、임관정요臨官政要、계갑일록癸甲日錄、가례집해家禮輯解 등의 저술이 있고 그밖에 잡동산이雜同散異、성호사설유선星湖僿說類選 등을 저술하였다. 그 문집에 수록된 천학고天學考와 천학문답天學問答에는 그의 천주교에 대한 인식이 담겨 있다. 실학자로서 천주교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고 목천현감으로 재직시에는 향약鄕約을 실시하여 유교의 이념을 실현코자했으며 그는 다른 성호학파의 실학자들과 달리 어디까지나 철저한 주자학자이자 조선학인朝鮮學人이었다. 이러한 안정복이 동사강목, 즉 동국역사의 통감강목通鑑綱目을 찬술하면서 모은 자료를 가지고 엮은 동사잡록에 이 강로전을 포함시킨 것이다.

소인호 교수는 동연구의 맺음말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현재까지 발견된 강로전의 이본 5종을 대상으로 하여 세부적인 서사 단락의 기술 양상과 표현상의 특성을 대비 고찰함으로써 해당 텍스트가 지니는 이본적 위상과 그 의미를 파악해보았다.

먼저 강로전의 내용을 7단계로 구분하여 규창본과 자저본, 국편본의 세 이본을 검증해보았는데, 이들 이본은 각기 다른 계열적 속성을 뚜렷이 드러내주고 있다. 국역본을 한문으로 재번역한 규창본은 구어체의 서술이 종종 눈에 띠는 가운데 고유명사에 있어서의 오기가 많이 발견되고, 한시漢詩 등 원칙적으로 재번역이 곤란한 일부 대목에 있어서 축약 혹은 생략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거듭된 문자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내용과 표현에 있어서 국편본과 거의 유사한 모습으로 재현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국문 저본은 원작계열의 이본을 거의 축차적으로 번역한 성격을 지녔으리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자저본은 거의 모든 서사 단락에 있어서 세부 장면 묘사나 대화、삽화 등을 생략하는 방식으로 축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건의 경과만을 제시하려는 보고적인 기술태도를 취하고 별도의 논평을 추가하는 등, 원작의 소설적 성격으로부터 현저하게 이탈하여 전傳으로의 양식적 변모를 지향하고 있다.

국편본은 모든 서사단락의 내용을 가장 충실하게 지니고 있기 때문에 동사잡록본、화몽집본과 함께 원작 계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지만 문장표현에 있어서 여러가지로 미숙함을 드러내며 특히 어구의 착란과 오기가 상당하다. 이와 같은 오류는 동사잡록본과 화몽집본을 통해 대부분 바로잡을 수 있다. 이 두 이본은 문장표현은 물론 구체적인 어구의 활용에 이르기까지 거의 일치하고 있는데 필사 시기가 선행하고 상대적으로 오자나 착란이 적은 화몽집본을 선본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화몽집본 역시 일부 오기가 발견되고 작품 말미의 몇 행이 인멸되어 있으므로 두 이본의 상호 대교對校를 통해 원작의 모습에 가까운 텍스트를 재구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강로전에 관한 연구는 모두 국편본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국편본은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분명해진만큼 이제부터는 화몽집본을 기준본으로 하여 동사잡록본의 내용을 참고、보완하는 방식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08년 7월에 국헌공에 관한 심층연구서 ‘ 권칙權式과 한문소설漢文小說 을 저술해 발간한 전남대 국문과의 신해진申海鎭 교수는 강로전의 해제解題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강로전은 홍세태洪世泰(1653~1725)의 김영철전金英哲傳과 함께 17세기 전기 동북아 정세변화에 따른 국제적 질서의 재편을 둘러싸고 명、청、조선이 벌인 전쟁을 중심적 배경으로 한 작품이다. 1618년 후금의 누르하치란이 일어나자 명나라 요청에 따라 조선은 구원병을 보내게 된다. 이때 구원병을 지휘하게 된 도원수 강홍립이 ‘ 최대한 시일을 끌며 요동의 전황을 살피고 행동을 결정하라 ’는 광해군의 밀명에 따라 명나라와 후금의 틈바구니에서 관망의 자세를 보이다 후금에 투항하여 8년간 지내다가 정묘호란 때 도리어 후금의 장수로 귀국하여 병사病死하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곧 강로전은 1619년에 있었던 조선군의 요동정벌과 패배, 1627년의 정묘호란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해내고 있다. 따라서 17세기초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의 실상에 대한 파악과 그 사건에 참여한 인물에 대한 평가 등을 함에 있어 물론 작가의 시선과 의식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의미가 있는 작품이다.

강로전은 전체적으로 숭명배호崇明排胡의 시대적 분위기를 담아내는 가운데 ‘ 오랑캐에게 무릎을 꿇고 목숨을 구걸한 최초의 조선 장수 ’라는 인물상을 그려내고 있다. 곧 막강한 군사권을 쥔 자가 당시의 정세변화를 교묘하게 이용하다가 후금에 투항하여 어떻게 목숨을 보전하고 영화를 누리려 했으며, 또 정묘호란 때 후금의 장수로 참전하여 고국을 처절하게 도륙하는 모습에서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저버렸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결국 강로전은 비열한 반역자의 소위 ‘ 부정적 소설주인공 ’ 형상을 창출한 작품이라 하겠다.

그런 다음 신교수는 국헌공보다 50여년 뒷사람인 홍세태가 지은 김영철전을 대비하여, 김영철은 광해군조의 요동출정과는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 한 민초인데 그가 겪은 포로생활과 가족이산의 고통을 형상화한 것으로서 강로전이 구현한 서사의 이면을 살펴볼 수 있게 하여, 두 작품의 관련성이 흥미로운 주목의 대상이라 하면서 다음과 같이 잇고 있다.

강로전은 권칙이 서얼로서 바라본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이 투사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서두에서 강홍립이 부조의 공렬을 이어받아 온갖 화요직華要職을 역임했음을 강조하고, 작품의 말미에서는 ‘ 미천한 사람은 오히려 주인을 배반하지 않는데 역적은 도리어 의관세족衣冠世族에서 나온다 ’고 비판하고 있는데, 문벌세족에 대한 비판인 셈이다. 그리고 ‘ 사람을 쓸 때는 권세와 이익만을 좇으니, 사람들이 모두 사방으로 흩어져버린다. 그리하여 일을 당하여서는 회피하고 방관만 한다 ’고 한 대목을 보면 인재등용이 공정하지 못함을 비판하고 있다.

강로전은 강홍립의 휘하에서 심하深河전투에 직접 참여했다가 강홍립이 후금에 투항하자 천신만고 끝에 탈출하여 살아 돌아온 국헌공이 직접 체험을 바탕으로 쓴 작품임을 강조하고 성대중成大中(1732-1812)의 청성잡기靑城雜記에 있는 글로서 ‘ 국포國圃 권칙權伋은 문리文吏로서 강홍립의 심하전역深河戰役을 좇다가 홍립이 오랑캐에 항복하니 칙이 몸을 빼쳐 도주해 압록강에 이르렀다. 여러날을 먹지 못해 눈이 보이지 않았는데 사람의 똥을 먹고서야 비로소 볼 수가 있어 또한 살아돌아오게 되었다. 강로전을 지어 아주 상세히 갖추어 썼는데 또한 간양록看羊錄에 비견된다. 그러나 강항姜沆은 동토童土 윤순거尹舜擧의 스승이었던 고로 간양록은 세상에 드러나고 강로전은 일컬음이 없으니 기절氣節이 같고 사적事蹟도 같고 저술도 같지만 그 또한 행불행幸不幸의 다름이 있는 것인가權菊圃伋 以文吏 從姜弘立深河之役 弘立降虜 而伋脫身逃還 至鴨綠江 不食數日 目不能視 嚥人矢而始覩 意得生還 著姜虜傳最詳備 亦看羊錄比也. 然沆以尹童土舜擧之師 故看羊錄著於世 姜虜傳則無稱焉. 氣節同事蹟同 著述同 而其亦有幸不幸之異耶 ’라고 한 대목이 이를 확인해준다고 말했다. 그 해제는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이처럼 전란을 직접 참여한 권칙은 누구보다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될 처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조선의 패배를 강홍립 개인에게만 그 책임을 철저히 묻고 있다. 이러한 의도를 작가의 신분적 처지나 세계관에서 기인한 것으로만 볼 수 있을지 자문해볼 일이다. 오히려 인조반정에 성공한 서인세력의 광해군조에 대한 도덕적 우위를 재확인하려는 의도가 철저히 개입된 것으로도 불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 대목에서 신교수도 학계의 위압적인 흐름을 의식해선지 평서의 문장에 거센 수식어를 간투해 논리의 평정을 잃고 있다. 또한 신교수는 위의 단락에 각주도 달아 송하준의 2004년도 고려대 박사학위논문